

# 티아K소식

## 제 1차 한·불 전자통신분야 협력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 1차 한·불 전자통신분야 협력회의를 갖고, 멀티미디어·대화형 CATV·개인휴대통신(PCS)·통신SW·데이터전송·IC카드 등 양국의 주요 개발 및 관심사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전자·통신산업 분야에서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과 프랑스가 전자·통신산업 분야에서 정부·민간기관 및 관련업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양국간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공식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박수훈 상공자원부 전자정책과장을 수석대표로 해 13명의 전자공업진흥회·전자부품조합연구소 등 관련단체·연구소·업체관계자들이 참가하고, 프랑스 측에서는 디디에르위크(Didier Huck)산



업체신대의무역부 전자통신부문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십여명이 참석해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통신장비와 핵심부품 등을 주된 관심의제로 삼고 있으며, 프랑스 측에선 통신 SW(네트워크 관리·응용시스템)와 LAN·ISDN 등 데이터 전송·멀티미디어 기술 등 토의 의제로 제시했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자·통신산업 분야의 상호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비디오텍스·게이트웨이·인버터·배터리 충전기·HDTV·고속철도관련 제어 및 컴퓨터통신기술 등에 대한 기술수요 조사와 기술이전 촉진방안을 적극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신단말기·정보화기기·정밀전자부품 등에 대한 기술이전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신부문 합작회사 유치 등 우리나라에 프랑스 기술력을 이용해 합작공장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양국의 공동연구를위한 국가간 협정을 체결할 계획인데, 현재 우리나라 생산기술연구원과 프랑스의 연구기관(ANVAR)간 협정체결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상호인증 교류와 형식승인제도의 개선, 무역절차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한·EU 가전산업협의회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 30일 브뤼셀에서 한·EU

간 가전산업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인켈 등 가전업체에서 모두 8명이 참가했으며 EU측에서는 유럽가전제품 제조자협회(EACEM)와 가전제품 제조업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가전제품에 대한 사적 복제 부담금제도 도입문제, 가전제품관련 환경문제 대응방안, 가전제품 유통구조 및 표준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했다.

특히 EU시장 내에서 한국산 가전제품의 유통과 반덤핑문제 등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최근들어 EU측의 제소가 연이어지고 있는 반덤핑과 관련, 관련업체는 수입규제에 대한 맞대응은 한계에 다다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측 업계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 사업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번 모임이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CATV용 컨버터 시연회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 7일 수원종합유선방송국에서 한국형 컨버터의 신뢰성 검정을 위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체신부·공보처와 함께 국책개발사업으로 전자부품종합연구소 주관하에 5억원을 투입해 13개 업체가 공동개발해 온 CATV용 풀 ASIC형 컨버터의 국산화에 성공, 양산에 들어갔다고 이날 발표했다.

또 수원종합유선방송국에서 각 가입자 가정에 설치되는 컨버터의 양산모델에 대한 품질 및 성능, 호환성을 검증함으로써 각 유선방송

국들이 내년 1월 CATV시스템 및 부품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CATV기기 수요의 약 50%를 차지하는 컨버터를 풀 ASIC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됨에 따라 컨버터 제조업체들은 제조원가를 대당 약 31달러(로앤드 기준)씩 줄일 수 있으며 컨버터 수요자인 종합유선방송국에선 5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5년간 약 1억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한국형 컨버터의 시험검증에 직접 나선 것은 이제부터 종합유선방송국의 컨버터 수요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 국산 컨버터에 대한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풀 ASIC형 컨버터의 수요확대를 통해 제조업체들의 양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발된 풀 ASIC형 컨버터는 가입자 단말기용 컨버터의 핵심부품인 디스크램블러에 채용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를 모두 ASIC화한 것으로 이미 국산 개발된 디스크리트형에 비해 제조원가가 낮다.

또 아날로그 칩은 미국 헤리스사와 BTT사가, 디지털 칩은 삼성전자가 각각 지난달 26일 품질합격 판정을 받아 최근 공동판매를 위해 설립된 세일ASIC(주)를 통해 삼성전기·나우정밀·금성알프스 등 컨버터 개발생산업체에 공급하기 시작해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한국형 가입자 컨버터 제조업체들은 국책사업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수요자들이 디스크리트형을 구입해야할 경우 당분간 일부 수요에 대해 ASIC형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 HA산업협의회, 개발 사업 확정

본회는 지난 11월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HA산업협의회 표준화분과위원사인 삼성전자·금성사·대우전자·현대전자·(주)한국통신 등 5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 회의를 갖고 HA산업협회의 조직 및 운영계획, 사업추진계획 등을 확정, 본격 시행키로 했다.

특히 사업추진계획에서 HA산업협의회는 가정용 보버스 표준규격 적용기술을 공동개발관련 워크숍을 내년초부터 개최, 기술별 중간개발내용을 발표하고 연구소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HA와 케이블TV의 접속기술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 상반기중 착수한다는 방침아래 자료수집과 전문기술인 모임을 구성하는 등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체설계에 설계한 IFU(Interface Unit) 시제품을 한국통신에 위탁제작해 관련회사에 제공, 시험하고 IFU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성사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연구결과도 함께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NCU(Network Control Unit)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전자와 응용전화기를 개발하고 있는 대우전자·한국통신 등도 조만간 연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 참가중인 5개사는 내년 3월을 목표로 각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를 제출키로 했으며 5월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에 HA표준화 규격을 보완해 6월

말 경 건설사 등 관련업체 관계사들을 초청해 표준화 관련 시스템의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내년 3월 말까지 각 부문별 연구결과를 시스템으로 결합 시험을 거쳐 보완해 늦어도 내년 9월말까지는 이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폐가전품 처리 대책위원회 미국지역 조사단 파견

본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동안 미국 워싱턴, 디트로이트 등에 폐가전품 처리 대책위원회 미국지역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조사단은 미국의 폐가전품 회수,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폐가전 재생기술 도입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미국 환경관련 그룹과의 간담회를 통한 국내 폐기물 예치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PC 주기판 조정관세 기간 연장 건의

본회의 PC 주기판 분과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동건의안을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재무부, 무역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동 건의는 '94년초 PC 주기판에 대한 조정관세 인하(20~25%→15~20%)로 저가 주기판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주기판 업계의 생산 및 수익성 감소 등 국내 주기판 산업이 위기를 맞이해 PC주기판 조정관세 기간을 '95년부터 2년간 연장하고, PC주기판 조정 관세율을 15~20%에서 25~30%로 상향조정하며 핵심부품 공동구매 등 산업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요청을 건의한 것이다.